

관동군의 대(對)소련 정보사상전과 백계러시아인 정책*

김인수**

[초 록]

총력전 시대 제국 일본의 정보사상전 속에서 소수자(minority)가 처한 위치의 고유성(singularity)이 가장 극명한 형태로 표출된 것은, 만주국이 표방한 민족협화의 한 구성요소이자 소비에트연합(소련)의 정치적 반대자(‘反共’), 또 동시에 인종적·민족적 차원에서 러시아인(및 카자크, 그루지아 등 여러 하위 민족들)의 범주 안에 들어 있었던 이른바 ‘백계러시아인’(白系露人; 白系ロシア人) 문제였다. 관동군은 이들을 정보사상전, 선전전, 모략전의 수단이자 대상으로 삼았다. 관동군은

* 이 연구는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로서 진행되었다. 이 글의 초고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주권·민족·지역질서】(2018년 12월 7일)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김인수(2007), 「1930년대 후반 조선주둔일본군의 대(對)소련, 대(對)조선 정보사상전」, 『한국문학연구』 제32집의 후속작업에 해당한다.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관동군, 백계러시아인, 총력전, 정보전, 선전전

The Kwantung Army, White Russians, Total War, Intelligence Warfare, Propaganda

소련의 정보사상전 기법을 세심하게 관찰, 학습했고, 이를 역용(逆用)했다.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을 정보사상전 부대로 편성하여 활용했고, 이들의 농업이민을 통해 소련과의 완충지대(buffer-zone)를 구축하려 했다. 나아가, 이들에 근거한 자치정권의 창출을 기획하기도 했다.

관동군의 입장에서 백계러시아인은 소련에 대한 이해, 견제, 개입에서 소련에 관한 지식의 자원(resources)이자 선전/모략의 유용한 도구였다. 또, 백계러시아인은 ‘반혁명 조국복귀’의 열망을 체현한 주체였다. 그러나 그들은 러시아인의 민족적 소질을 내포하고 있기에 방첩/경계의 관리대상, 위험한 존재로도 인지되었다. 백계러시아인이 지닌 속성, 이를테면 (1) 반공의 이념과 (2) 러시아인으로서의 민족적 소질은 근원적으로 상호 모순과 상충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계러시아인 사회 내부의 분파갈등, 만주국의 민족협화 정책과의 불화, (반공) 이념과 (러시아인) 민족의 충돌, 적계와 백계 러시아인 식별의 한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소련의 군사적 우세 속에서 백계러시아인을 활용한 관동군의 정보사상전은 결국 실패로 종결되었다.

관동군의 대(對)소련 정보사상전, 백계러시아인 정책은 제국들 간의 총력전에서 하위 민족집단이 자리한 장소의 성격,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정치기획의 행방을 추적, 관찰하는 데에 대단히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1. 들어가며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이전까지의 전쟁의 문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장은 참호전, 소모전으로 바뀌었고, 후방은 경제전, 물량전, 장기 동원전으로 치달아갔다. 소위 총력전(Total War)¹⁾으로 불리게 되는 이

1) 고든 라이트(Gordon Wright)는 총력전의 개념적 요소로, (1) 대량군단(mass army)의 전장파견 (2) 산업경제의 동원 (3) 시민의 규율화와 조직화 (4) 전쟁규모의 무제한성 (5) 전쟁의 급진화(radicalization) (6) 전투에 대한 관습적, 도덕적, 법적 제한의 폐기 (7) 전쟁목적의 명기 (8) 적에 대한 악마화된 표상(demonization) (9) 병사와

새로운 전쟁양식은 전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통상 스파이전으로 불려온 전통적인 방식에 국민/대중의 정신동원 — 선전(positive propaganda), 검열(negative propaganda), 사상통제 — 이 추가, 결합되었다. 정보사상전/선전전으로 개념화되는 이 새로운 영역은 전장 전술의 차원에서 병사의 사상검열과 사기진작, 스파이적발과 역(逆)스파이 이용, 포로의 관리와 활용에 주안을 두었다. 또, 전략의 차원에서는 전쟁목표의 설정과 신성화 — 이를테면, ‘신질서’(new order)와 성전(聖戰) —, 발전과 정체의 문명사적 대비와 같은 의제를 예비하고 양산했다. 정보사상전/선전전은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자국 국민들이 장기화된 전쟁동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과 빈핍에 견딜 수 있도록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국 국민들이 염전(厭戰)과 반전(反戰) 의식을 가져 내란/혁명으로 체제가 내파되게끔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방과 후방, 전선과 기지, 군대와 시민, 말과 몸이 서로 경계 없이 뒤섞이고 혼류(混流)하는 이른바 총력전의 고유한 원리는 정보사상전/선전전을 통해 그 여실한 모습을 드러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전장이었던 유럽에서 전쟁은 총력전의 군사적, 기술적, 체제적 위용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형태를 띠었는데, 그것이 낳은 후과(aftermath)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인류절멸의 공포에 따른 반전평화(反戰平和) 및 군축의 사상, 소비에트혁명(1917), 그리고 유럽에서의 구(舊)제국의 해체 = 민족들의 독립이라는 사태였다.²⁾ 사회의 총동원은 내적 불만을 고조시켜 ‘계급투쟁’으로 이어졌고, ‘민족주권’(Nationalism)의 정치적 의제는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였다. 전후(戰後)의 세

시민 간 구분의 제거 등으로 정리하였다(Wright, Gordon (1968), *The Ordeal of Total War, 1939~1945*, Prospect Heights, Ill.: Wavel and Press. Inc).

2) 미국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러시아혁명(1917) 이후 레닌의 소비에트가 기약한 식민지 민족해방의 구상은 서로 팽팽한 경쟁관계를 맺으면서 세계적으로 유포되었고, 곳곳에서 ‘민족주권’의 열망을 고양시켰다.

계에서 계급과 민족에서 비롯된 갈등을 관리하는 일은 총력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각 국가의 일차적인 과업이 되었고, 미래전 역시 총력전일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 속에서 이 과제는 영속적인 것으로 인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외형상 유럽 대륙의 전쟁이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군수의 조달이라는 형태로 이 전쟁에 개입되어 있었고, 영국의 인도병사 동원에서 보이듯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던 지역의 인민과 경제도 동원되어 ‘대리전’을 치렀다. 동원이 혁명으로 귀결되는 전쟁의 진행과정에 몇몇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사회동원이 낳은 극적인 성과, 다시 말해 소비에트의 정치적 성공에 대해 반혁명 군사개입이 감행되기도 했다(시베리아출병, 1918-1922). 파리강화회담으로 대표되는 전후처리와 그것이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는 전쟁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주권-민족의 관계에 골몰하고 있었던 ‘관객’들의 정치상상을 자극하고 온통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변방에 자리한 일본은 이 총력전(총동원), 반(反)혁명, 계급/민족의 관리라는 문제에 전쟁당사자인 유럽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³⁾ 우선, 총력전의 일반적 속성에 관해 일본의 군 중앙은 유럽 각국에 파견된 주재원, 중군무관, 유학생들을 활용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에 몰두했다. 이들은 교전국가의 육군에 관한 용병작전, 병력, 편성장비, 군수소모와 보급, 전 시산업, 국가총동원 등을 조사했다. 이를 이끈 대표적인 조직이 1915년 말 육군성 안에 설치된 임시군사조사위원회(臨時軍事調査委員會)였다.⁴⁾

3) 물론 일본은 군사적 차원으로도 전쟁에 개입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당시 동맹국이었던 영국의 요구에 따라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다. 일본군은 중국의 독일조차지인 칭따오(靑島)에서 독일의 동양함대를 격파했다.

4) 임시군사조사위원회의 출현과 활동에 대해서는, 『臨時軍事調査委員解散顛末書』(1922.3.31.)와 김인수(2016), 「총력전기 식민지 조선의 인류와 물류의 표상정치」, 『서강인문논총』 47, pp. 96-98을 참고할 것.

다음으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발생한 러시아 볼셰비키혁명(1917)과 소비에트의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시베리아출병을 감행했다. 1918년 여름,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 반혁명과 원조를 위한 간섭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일본이 파병한 인원은 6만 명을 헤아렸으며 1922년에 최후로 철수했다. 마지막으로, 총력전/총동원이 식민지/점령지에서 재현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급속히 부상한 지역의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일본의 미래에 던져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만주사변(1931)의 결과로 건국(1932)된 만주국의 ‘민족협화’는 국제적, 지정학적 변수에 의해 구상된(제약된) 슬로건인 동시에, 민족의제로 인해 촉발되는 정치적 아이디어를 안정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치언어였다.

그런데 총력전 시대 제국 일본의 정보사상전 속에서 소수자(minority)가 처한 위치의 고유성(singularity)이 가장 극명한 형태로 표출된 것은, 만주국의 민족협화에서 그 한 구성요소이자 소비에트연합(소련)의 정치적 반대자(‘反共’), 또 이와 동시에 인종적·민족적 차원에서 러시아인(및 카자크, 그루지아 등 여러 하위 민족들)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이른바 ‘백계러시아인’⁵⁾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12월 15일 쏘련시

5) ‘백계러시아인’(白系ロシア人; 白系露人)은 당시 ‘무국적로시아인’(無國籍露西亞人)으로 불렸고,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유랑생활을 했다. 이 개념은 러시아인 이외의 소수민족도 포함하는 것으로, 당시 러시아 바깥에 체재하면서 제정러시아 국적을 상실한 이들을 통칭한다. 이 가운데 만주에 살고 있었던 이는 약 7만 명에 달했다(1941년).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망명한 반공산분자 및 그 가족, 친척, 그리고 北鐵접수 당시에 귀국을 하지 않은 채 남은 자들이었다. 볼셰비키로부터 큰 박해를 받아 피해온 자, 육친을 혁명파에 살해당한 이들의 경우 심각한 반공의식을 갖고 조국 ‘러시아’의 부흥에 골몰했다. 시베리아출병 이후 일본육군과는 단단하게 제휴하고 있었다. 민족별로 보면, 러시아인이 6만 명, 우크라이나인이 2천 명, 유대인이 1,500명, 투르크 타타르, 아르메니아, 그루지아인이 각각 1,000~1,500명이었다. 종교로 보면, 러시아인은 그리스정교, 유대인은 유대교, 투르크 타타르인은 회교로 다양했다(西原征夫(1980), 『全記録ハルビン特務機關. 關東軍情報部の軌跡』, 毎日新聞社, p. 205, p. 207).

중앙집행위원회, 소비에트연방인민위원회의 법령에 의거하여, 1917년 11월 7일까지 소련정권의 허가를 얻지 않고 러시아영토를 떠난 자들의 국적이 박탈되었는데, 이로써 망명상태에 처한 백계러시아인들은 무국적자가 되었다.⁶⁾ 관동군은 이들을 정보사상전, 선전전, 모략전의 수단이자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는 대(對)소련 정보사상전과 관련된 관동군의 백계러시아인 정책과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만주국-소련 접경지대에 관철되었던 지역질서의 구조적 조건과 성격, 그리고 그 변형과 지속의 문제를 포착해보고자 한다.⁷⁾ 이것은 장기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1945년 이후 만주를 위시한

6) 도미트리예바·엘레나(Elena Dmitrieva)(2018), 「滿州国における白系ロシア人の位置付け」,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49(3), p. 80.

7)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대외 정보사상전 및 일본에 대한 미국, 소련의 정보사상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남부전선과 동남아 지역,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미국과의 대결을 다룬 연구들에 치중되어 있다(森山優(2016), 『日米開戦と情報戦』, 講談社; 山極晃(2005), 『米戦時情報局の『延安報告』と日本人民解放連盟』, 大月書店; 大田昌秀(2004), 『沖繩戦下の米日心理作戦』, 岩波書店; Kushner, Barak (2006), *The Thought War: Japanese Imperial Propaganda*, University of Hawaii Press). 미치바 치카노부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의 성립사정을 분석하여, 미국 군사작전에 매개된 일본학(Japanese Studies)의 탄생국면을 다루었다(道場親信(2005), 『占領と平和: “戦後”という経験』, 青土社). 미치바의 연구는 정보사상전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아카데미의 성립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드러내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의 소련에 대한 정보사상전은 小谷賢(2007), 『日本軍のインテリジェンス: なぜ情報が活かされないのか』, 講談社·山本武利(2016),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工作: 陸軍中野学校, 731部隊, 小野寺信』, 新曜社에서 일부 다룬 바 있지만 간헐적인 언급에 그쳤다. 조선주둔일본군(‘조선군’)의 대소련 정보사상전에 관한 연구로서는 김인수(2007), 「1930년대 후반 조선주둔일본군의 대(對)소련, 대(對)조선 정보사상전」, 『한국문화연구』 제32집이 있다. 관동군의 대소련 정보사상전 및 백계러시아인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 별달리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백계러시아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만주국의 교육체제 및 민족협화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분석이 진행된 정도이다. 자료집으로서,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戦資料』(第1, 2巻), 東京: 現代史料出版; 西原征夫(1980), 『全記録ハルビン特務機關: 關東軍情報部の軌跡』, 毎日新聞社가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 다시 말해 탈식민화, 국가형성, 냉전으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촉진했던 하나의 동력 — 반(反)소련 이념, 반공주의 — 의 숨은 기원을 드러내는 소박한 시도가 될 것이다.

2. 관동군 대(對)소련 정보사상전 기구의 형성과 재편

일본 육군에게 러시아/소련은 최대의 가상적국이었다.⁸⁾ 시베리아출병(1918-1922) 이래 만주에서의 대(對)소련 정보활동에서 줄곧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관동군(關東軍)이었다. 관동군의 정보사상전의 주력 및 관계 기구는 특무기관, 관동헌병대, 경찰기관(영사관경찰, 관동국경찰, 만주국경찰),⁹⁾ 보안국, 관동군특종정보부, 동아통신조사회, 육군 登戶研究所, 관동군 참모부 제2과 등이 있었다.¹⁰⁾

첫째, 특무기관은 1916년 8월에 이르쿠츠크에 설치된 첩보기관이 효시였다. 1917년 3월부터 1918년 2월까지 첩보기관이 설치된 도시는, 하얼빈(1917.3), 치치하얼(1917.7), 알렉세예프스크(1917.12), 치타(1917.12), 이르쿠츠크(1918.1), 톰스크(1918.1), 옴스크(1918.2), 만저우리(滿洲里, 1918.2)

편집되어 있어서 활용에 큰 도움이 된다. 楊海英(2015), 『日本陸軍とモンゴル』, 中公新書の 경우,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육군의 정책을 일부 다루어서 백계러시아인 정책과의 비교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 8) 「제국국방방침」은 일본의 최고 수준의 전략문서로서 1907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세 차례(1918년, 1923년, 1936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육군의 가상적국을 보면, 1907년에는 러시아, 19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 1923년과 1936년에는 소련과 중국이었다(심호섭(2013),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군사』 86, p. 205).
- 9) 1937년 12월, 일본이 만주국에서 치외법권 철폐를 결정한 뒤, 영사관경찰은 만주국에 인계되었다. 만주국에서 경찰은 만주국경찰로 일원화되었다.
- 10) 아래의 각 기관에 대한 설명은 『對ソ情報戰資料』(第1卷)의 ‘解題’를 참고하여 서술한다.

였다. 이들 간의 공식적인 명령체계는 없었지만, 하얼빈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체를 통괄하는 체제였다. 1922년에 시베리아 철병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하얼빈, 헤이허(黑河), 만저우리의 특무기관만 남았다. 1937년에는 만주국 전체에 걸쳐 특무기관과 그 분파기관이 다시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하얼빈특무기관장(관동군 정보부장)이 대소련 정보활동 전반을 감독했고, 만주국 관현의 지도와 특무기관의 통솔까지 맡았다. 특무기관은 소련의 일반정세, 연중행사의 파악, 군사정보의 입수, 소련 신문의 입수와 번역, 대소련 라디오방송의 방수, 만주국 내의 민심동향 조사, 백계러시아인의 스파이 파견,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지도 등 포괄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둘째, 관동헌병대는 스파이 적발 등 방첩활동을 주로 담당했다. 일본 측에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스파이는 다시 ‘逆用’(첩자)로 발탁되었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스파이는 ‘特移拔’으로 731부대로 보내져 마루타가 되었다고 한다.¹¹⁾ 헌병대는 만주국 내의 각 민족의 민심동향을 조사하고 유관기관의 관련정보를 수집했다. 『사상대책월보』의 발행 역시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셋째, 보안국은 관동군의 후원과 지도를 통해 정보활동을 편 만주국의 비밀조직으로서, 1937년에 설립되었다. 국경경비, 격오지의 보안검열과 경찰업무, 방첩 등 주로 국경지역에서 소련에 대한 정보활동을 수행했다. 동아통신조사회는 1940년 8월, 무선방수를 통해 소련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만주국 정부, 관동군,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이었다.

마지막으로, 관동군 참모부 제2과는 관동군 예하부대, 만철조사부,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 조선(주둔일본)군, 주몽골군(駐蒙軍), 북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 등에서 수집,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고 판정하는 업무

11) 山本武利(2016),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工作』, 新曜社. 특히 제8장 “대소련 인텔리젠스 기관으로서의 731부대의 수수께끼”를 참고할 것.

를 수행했다. 1931년 9월 19일에 이루어진 관동군 참모부의 업무분장에서 제2과는 정보, 선전, 모략, 방첩 업무를 배정받았다.

조금 이색적인 일로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접어들어 관동군 사령부에 제5과가 새로이 설치된 것(1941년 8월)을 들 수 있다. 제5과는 奉天 특무기관장을 지낸 이케다 스미히사(池田純久) 대좌(大佐)가 책임자가 되어, 대소련 작전이 진전될 경우를 감안하여 점령지 행정을 연구했다. 동부시베리아를 포함한 극동러시아령에 재주하는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행정관리, 교통확보, 생산확충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군의 후방병참을 어떻게 유지, 배양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한 준비작업을 수행했다. 정치, 경제, 보도(報道) 분야의 권위자들을 망라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는데, 관동군 정보부의 부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여 협력했다.¹²⁾ 1942년부터 추축국이 열세에 빠지면서 일본은 미국, 영국과의 전쟁에 몰두하게 되었고, 관동군 역시 남방(南方)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 전용(轉用)하는 상황에 처했다. 1943년 이후 관동군은 소련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소련의 동향에 대한 자료확보에 더욱 부심하게 된다.¹³⁾

-
- 12) 1933년에 하얼빈특무기관 보좌관을 지내면서 대소련 첩보의 일인자로 불렸고, 1945년 2월에는 하얼빈특무기관장(관동군 정보부장)으로 부임했으며 패전 이후 모스크바군사법정에 회부되었던 아키쿠사 슌(秋草俊, 1894-1949) 소장(小將)의 경우, 1940-42년 간 독일에 파견되어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행정기구를 연구하였다. 대영, 대중, 대미 전쟁에서 일본에 의해 점령될 수 있는 지역의 행정기구 설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소련에 대해서도 개진하게 되면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아키쿠사는 1940년에 유럽에 파견되어 약 2년 간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했다(『訊問調書: 秋草俊小將』(1945.11.22). 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2卷, pp. 503-521).
- 13) 西原征夫(1980), pp. 65-66. 이 책의 저자인 니시하라 유키오(西原征夫, 1905-1977)는 육군사관학교 제37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관동군에서 참모, 정보부 부원을 지냈다. 육군 대좌로 예편했고 패전 이후에는 후생성 사무관으로 일했다. 1959년에 퇴직한 이후에는 1974년까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전사실(戰史室)의 촉탁으로

한 가지 언급해둘 점은, 관동군은 대소련 정보사상전에서 대체로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만주국 건국 이후 관동군 중앙은 소련에 대해 “일본은 만주국 영역 내의 치안유지에 專心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¹⁴⁾ 또, 노몬한사건(1939년 5월 발생, 9월 정전협정 성립)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이어 ‘일소중립조약’(日蘇中立條約, 1941.4.13)을 체결한 이후로는 소련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선전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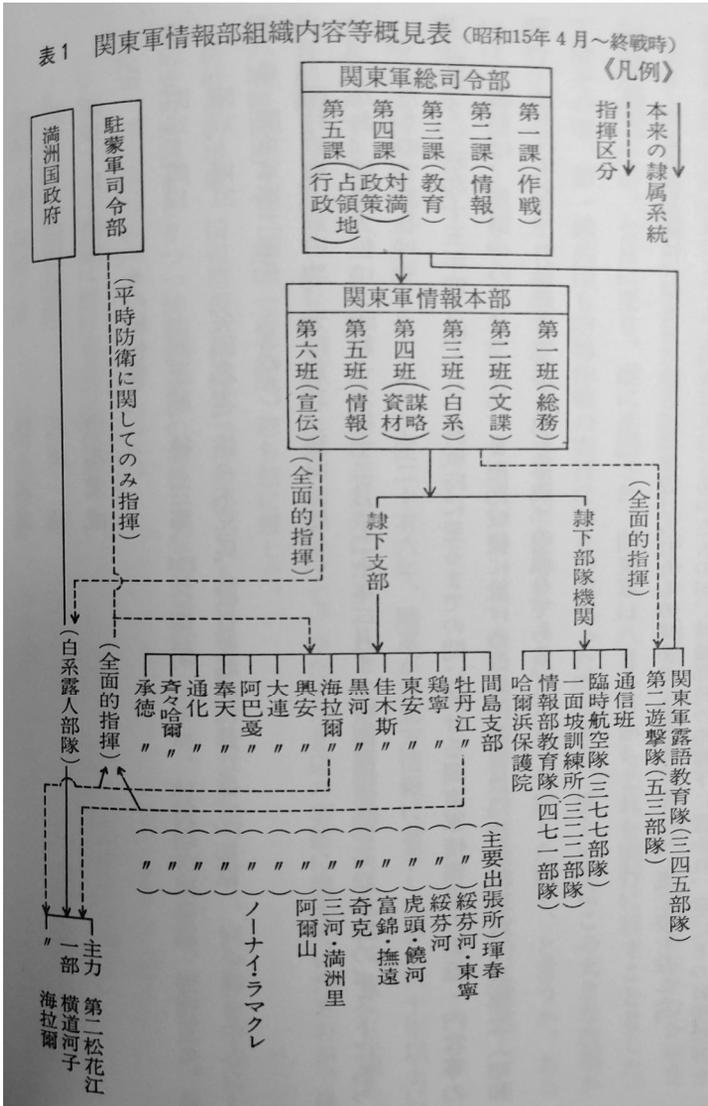
3. 소련의 정보사상전에 관한 일본군의 이해

3.1. 소련의 선전조직망 파악

일본 육군은 소련의 극동지역 선전조직의 분포와 활동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2]는 일종의 결산으로서 모스크바에서 극동러시아, 만주 각 주요도시, 식민지 조선의 경성을 거쳐 일본 도쿄로까지 이어지는 소비에트의 정보망, 선전망을 가시화한 계통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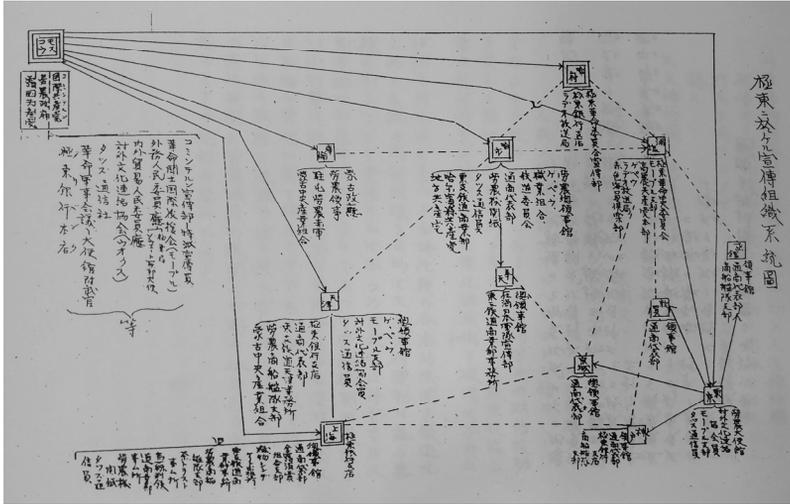
일했다. 저자를 소개한 글에 따르면, 관동군이 노몬한사건(1939)의 실패로 대소련 정보군무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선발되어 하얼빈특무기관(관동군 정보부 본부)에서 일했다. 이 책은 하얼빈특무기관장을 지낸 도이 아키오(土居明夫) 육군 중장의 명령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舊특무기관 관계자의 친목단체인 ‘北斗會’에서 제공받은 방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기록, 작성되었다. 1959년에 탈고했지만 도이의 사망 등 우여곡절 끝에 1980년에 마이니치신문사 쇼와사편집부의 출판지원을 얻게 되어 간행되었다. 간행을 앞두고 저자 니시하라 역시 사망했다(pp. 287-289). 이 책은 편제상 연구서 단행본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통사(및 자료집)에 가깝다.

14) 「興安省經略方案送付ノ件」(關參發 第359號. 1932.12.7. 關東軍參謀長 小磯國昭 → 陸軍次官 柳川平助)(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1卷).



[그림 1] 관동군 정보부 조직의 내용 개관표(1940년 4월~1945년 8월).

* 출처: 西原征夫(1980), 『全記錄ハルビン特務機關: 關東軍情報部の軌跡』, p. 80.



[그림 2] 극동의 소련 선전조직 계통도.

* 출처: 『(秘)極東に於ける露國の宣傳組織並機能』(陸軍省, 1928, 10).
 ** 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2卷, p. 26.

다. 1928년에 작성된 육군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극동러시아의 극동혁명위원회는 정치선전의 중심이었다. 그 선전부는 하얼빈총영사관을 통해 만주 전체의 선전기관들을 통괄했다. 블라디보스토크(浦潮)의 노동기관은 사실상 극동의 선전선동의 중심으로서, 동부만주, 조선, 일본에 대한 선전의 주축이었다. 그것은 고려공산당본부, 러시아상선함대본부, 적색선원구락부, 혁명투사국제후원회 등을 관할했다. 다음으로, 북만주 지역에서는 동지철도(東支鐵道) 연선을 중심으로 조선방면에 대한 적화근거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하얼빈현직업조합, 하얼빈현공산당, 하얼빈현청년공산당, 중국(支那)공산당 현위원회, 계폐우조직, 기관지 및 타스통신원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은 경성총영사관이 선전의 중심으로서,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서 경성총영사에 대해 선전에 관련하여 조선 내의 사상의 상태와 단속의 근황, 국경

경비에 관한 조사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 평양, 원산, 부산, 인천, 청진 등에 선전업무를 분담하는 기관이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고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의 소련대사관, 고베 등지의 영사관이 문화활동(동화작가 모임, 전람회, 문예가와 가부키단의 모스크바 초청)을 벌여 대중의 친소련 경향을 조장하는 것을 사례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련의 극동지역 적화정책은 “인도의 적화, 중국의 공산혁명, 조선의 혼란”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¹⁵⁾

3.2. 소련의 선전전략 분석

일본은 소련의 첩보, 선전의 양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했다. 1941년에 작성된 한 자료는 소련이 만주에 첩자를 밀파해 일본군의 첩보를 수집하고 비적을 조종하여 민심을 교란, 친소/공소(恐蘇)를 부추기고 군경에 대한 공작도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소련첩자는 주로 노몬한사건 당시 소련에 투항한 만군(滿軍) 배반병이거나 공비(共匪) 출신자로 파악했다.¹⁶⁾ 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첩자는 (1) 철도 등 교통기관을 통하는 것을 피하고 간도(間道)로 잠행하여 국경지대를 돌파하거나 (2) 거주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이를 숨기고 은밀히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방법을 썼다. (3) 일만군(日滿軍) 혹은 만주경찰의 복장을 사용하거나 (4) 만주국협화회 등에서 발부한 증명서를 휴대하는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심지어 (5) 무장첩자로 국경주민을 납치하는 행태도 발

15) 「(秘)極東に於ける露國の宣傳組織並機能」(陸軍省, 1928.10)(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2卷, pp. 7-22). 북중국, 남중국 지역의 소련 정보, 선전기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16) 「蘇聯諜報ノ特異性ニ就テ」(滿洲德第3036部隊調査班, 1941.9.24.)(소재: 『對ソ情報戰資料』第2卷, p. 243). 이 자료는 미군정기 ‘미국압수문서’로 판단된다. 표지에 “Copy 1959-7-14”라는 표식이 있다. 또, ‘滿洲德第3036部隊調査班’에서 작성한 다른 문서들도 ‘반환문서’군에 들어가 있다(검색사이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견되었고 (6) 비적을 통해 첩자와 무전기를 호송, 투입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이들의 국적과 연령의 배경도 함께 파악되었는데, 1940년에 검거한 소련첩자 77명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¹⁷⁾

국적으로 보면 滿支人으로서 山東省 22명, 奉天省 11명, 吉林省 33명, 安東省 2명, 河北省 2명, 牡丹江省 2명, 東安省 2명, 기타 3명. 첩자의 이전 주소는 密山, 虎林 등 국경지대에 존재하는 이가 다수임. 특히, 山東 출신 하층민이 소련첩자로서 다수 이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함. 나이는 20~40대, 신체 강건한 자.

농업 29명, 경찰관 13명 등 국경치안경비의 중책을 맡은 경찰관, 양민으로 가장한 농민이 소련의 마수에 걸려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어 첩보, 모략을 감행하고 있음.

학력은 하층농민이 다수를 점하여 77명 가운데 절반 가량. 중등학교 이하가 다수. 그러나 재소간첩자로서 특종교육을 받은 이는 대개 상식이 발달하고 무학자라 하더라도 첩자로서 필요한 문자해독을 할 수 있을 정도임.

산둥출신의 하층민들이 소련첩자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는 점,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어 첩보와 모략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파악한 점이 인상적이다. 일본군 정보당국의 파악에 따르면, 소련 첩자가 받게 되는 사상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강조되었다.¹⁸⁾

(1) 소련은 예전의 제정시대의 러시아와는 달리 지금은 세계의 강국이다. 스탈린이 인종차별을 없앴고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중국인은 우방인으로서 대우받는 지위에 선다.

(2) 일본은 입으로는 日滿一心一德, 동양평화를 운운하지만 무력

17) 위의 자료(소재: 『對ソ情報戰資料』 第2卷, p. 246).

18) 위의 자료(소재: 『對ソ情報戰資料』 第2卷, pp. 249-250).

으로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인을 노예로 삼았다.

(3) 일본은 소련을 침략하려 계획하고 있지만, 소련의 국토와 국방을 보건대 도저히 일본에게 승산이 없다. 소련은 각종 신병기를 장착하고 대일본전을 준비하고 있다.

(4)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부(富)를 나누지 않고 거국일치로 국난을 극복할 용기가 충만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5) 일본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만주를 침략했다.

(6) 레닌은 공산주의의 선각자이자 대표자로서 소련을 통치한 위대한 인물이다.

(7) 일본은 제국주의로서 자본주의 국가이자 약육강식의 본심을 드러내 약소국인 만주를 점령하였다. 소련은 일본에 침략당한 중화민국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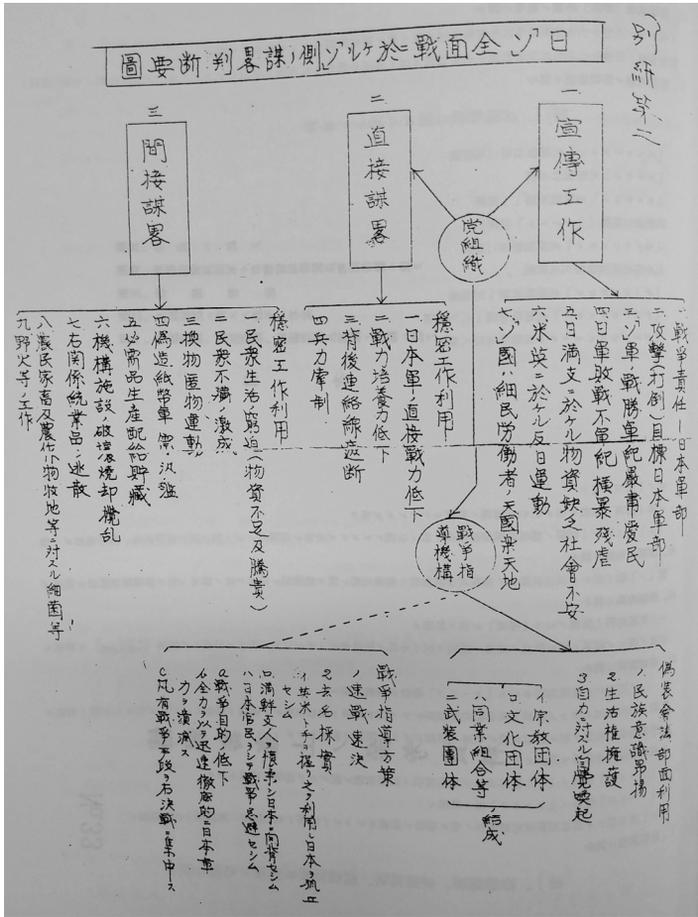
(8) 레닌, 스탈린은 소련에서 무산자 공산국가를 건설한 이들이다. 바야흐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낙토에서 인민은 빈부차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

(9) 중국은 빈부차이가 크다. 마오쩌둥과 朱德은 스탈린과 제휴하여 구국운동을 하고 있다.

소련의 첩자사상교육이 소련이 세계적으로 인종과 계급, 나아가 민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에 비해 일본은 침략적이고 군사적으로도 약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형태로 담론을 만들어내어 적용하고 있음을 포착해내고 있다.

[그림 3]은 1940년대 초 극동지역 전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파악한 소련의 선전공작의 요점이다. 이에 따르면, 소련은 전쟁책임을 일본에게 돌려 이를 공격목표로 설정할 것, 소련군의 전쟁 군기(軍紀)를 엄정하게 할 것, 일본군의 잔악성을 선전할 것, 일만지(日滿支) 지역에서의 물자부족과 치안불안을 부각할 것, 빈민과 노동자를 위한 소련의 정책을 선전할 것 등을 선전공작의 내용으로 구상했다. 또, 소련의 전쟁지도기구는 민족의식을 부각시켜 식민지 민중의 각성을 유도하고, 생활권을 용

호하여 민중을 자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 3] 소일전면전에서 소련 측의 모략판단 요도(要圖).

* 출처: 『日ノ戰ニ於ケルソ側ノ謀略策動ニ就テ』(滿洲德第3036部隊調査班, 1941.9.10. 防衛治安情報第1號).

** 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2卷, p. 283.

3.3. 소련 뼈라와 선전방송에서의 담론

일본군의 정보기구 분석에 따르면, 소련의 대일본 선전전은 전장의 장병을 대상으로 전쟁발발의 주된 책임이 일본의 군벌, 재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련이야말로 노동자와 농민의 천국이라는 점을 어필하여 친소사상을 갖게 한다는 목표 하에 실행되었다. 실제로 노몬한사건 당시에 소련군이 일본군에 산포한 뼈라를 보면, 전장에 파견된 병사들을 지도부(장교)와 분리하는 담론을 구사하는 한편, 후방(고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사례로 제시하여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한 점이 발견된다. 노몬한전투에서 소련군은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곳곳에 소재한 일본군을 압도했고, 확장기를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명료한 일본어로 일본병사들에게 항복을 권고하였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일본 병사여!>

“너는 이미 죽을 운명이다. 고향의 관리가 너의 처와 부모를 희롱한다. 너의 아버와 아이는 굶어죽고 있다. 자신의 가족을 도우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일본 병사여>

“장교야말로 너의 가장 나쁜 적이다. 너를 사지(死地)에 내세운 장교를 사살하라!”

<일본 병사여!>

“고향의 진짜 정황을 알고 있는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19) 뼈라의 내용은 「日ソ戰ニ於ケルソ側ノ謀略策動ニ就テ」(滿洲德第3036部隊調査班, 1941.9.10. 防衛治安情報第1號)(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2卷, pp. 277-281)에서 발췌하였다.

수 없게 하기 위해 장교가 너의 양친으로부터 온 편지를 폐기해 버렸다.”

<일본 병사여>

“장교가 너의 적이다! 그들은 몽고공화국(蒙古共和國)에 대해 전쟁을 시작했다. 수천 명이 죽었다. 비행기 수백 대가 전멸했다. 너의 군대는 사지로 달려가고 있다. 늦기 전에 장교를 죽여라. 만주에서 벗어나라.”

<일본 병사여!>

“만주국의 군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수천 명의 병사가 참가한다. 일본 병사여! 포위될 공포가 있다.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후방에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를 자극하고, 장교와 사병을 이간질하는 담론이었다. 이외에, 일본병사들 안에서 전황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일본병사의 입장의 목소리를 빌어 담론을 만들어낸 선전 물도 눈에 띈다.

<병사들(兵士達)>

“지나(중국)에서 벌써 2년 이상 우리의 형제들이 피를 흘리는 이 전쟁. 일본의 전쟁주의의 이익을 위해 80만 명의 혈기왕성한 청년 일본인들이 살해당했다. 6월 15일의 신뢰할만한 통신에 따르면, 5월에 중국전선에서 14,000명이 죽었다. 6월에는 보름 간 11,268명이 죽었다. 또, 171명이 포로가 되었다. 일본군함 8척이 침몰했다. 대장은 우리에게 ‘전쟁은 조기에 종결된다’고 했지만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산가가 우리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를 더욱 착취한다. 놈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몽고공화국과 새로 전쟁을 시작하여, 2개월여 몽고에 있는 프리르노르라는 호수 방면에서 맹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비행기는 100대 이상이 전멸되었다. 병사

들은 승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병사에게(日本の兵士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일본제국주의는 지나(중국), 만주를 대가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 이것은 일본의 은행가, 지주, 장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다. 고향에서 천리타향에 있는 일본 병사가 지나, 만주에서 왜 전사하고 있는가? 일본에서는 가족이 굶주리고 과세에 시달리는 일본농민의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지주와 부농(기생자), 장군이 병사의 처를 농락하고 있다. 일본병사 同志! 지금 외몽고의 토지를 우리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여 목적도 없이 피를 흘리고 있다. 장교(일본병사의 압제자)를 타도하여 전멸시켜라! 전쟁을 그치고 경찰관리, 지주, 자본가의 압제에서 부모와 처를 지키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라. 외몽군 측에 투항하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에서는 포로를 형제처럼 환영하고 있다.”

일본병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이 “일본의 은행가, 지주, 장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담론은 일본 안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격돌을 노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백계러시아인을 활용한 관동군의 정보사상전

4.1. 배경

관동군이 대(對)소련 정보자원으로 백계러시아인을 주목한 데에는 대소련 정보활동의 제한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우선, 일본인이 소련 국내에서 현지의 러시아인과 접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했다. 당

시 민간의 방첩의식이 강했고 소련 국내의 숙정이 심해지면서 외국인에게 길을 묻는 일조차 스파이행위로 의심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소련에서는 기밀정보의 전체상을 아는 인물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각자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의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38년 6월에 극동지구 장관이었던 리슈코프 장군이 일본에 망명했을 때 첩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련에서 만주로 망명해 온 러시아인을 매수하여 재차 소련에 잠입시키는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관동군 정보부가 스파이요원양성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²⁰⁾

1933년 6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관동군은 예하 첩보 및 선전 업무 관계자들을 회합시켜 회의를 열었다.²¹⁾ 이곳에서 회람, 검토 또는 회의의 결과로 생산된 서류들을 통해 관동군의 백계러시아인 정책의 일단(一端)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秘)參謀長口演要旨」(1933.6.15, 關東軍參謀部)에 따르면, “(소련에 대한 모략선전은) 개전(開戰)의 구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소련의 적화(赤化) 사실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선전하고 발표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련이 표면상으로는 엄정중립의 외양을 띠지만, 이면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반만항일공작을 감행한다. 재만주 구미관헌이나 비적의 활동을 助成하거나 황군(皇軍)의 군정, 만주국의 국정을 거짓으로 말하여 국제관계를 불리

20) 小谷賢(2007), 『日本軍のインテリジェンス』, 講談社, pp. 48-52. 물론, 스파이 대부분은 소련군에 체포, 세뇌되어 소련 측의 이중스파이가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많아 이 계획의 운용도 순조롭지는 못했다. 일본 측의 특무기관에 오랫동안 고용되어 신뢰를 얻고 있었던 러시아인이 1945년의 종전 이후 소련 측의 스파이였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1) 「關東軍隷下課報宣傳會議ニ關スル書類ノ件通牒」(關參謀 第25號, 1933.6.20., 關東軍參謀長 小磯国昭 → 陸軍次官 柳川平助)(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 (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1卷).

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그 중개자로서 白系露人 또는 滿支人을 이용한다”²²⁾는 점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백계러시아인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白系露人の 영락에 관해서는 실로 동정을 금할 수 없지만, 배타, 편견 등 그들 일파의 성벽은 여전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각 당파로 분열하여 대동단결의 기운에 이르지 않는다. 또, 누년의 생활궁핍으로 인해 당초의 반대 기개나 절조도 점차 소실되고 있다. 혹자는 소련에 은밀히 내통하여 생계자원을 얻고 혹자는 영미의 주구가 되어 반만항일의 자료수집, 선전에 종사한다. 그러나 군으로서의 장래전을 고려하여 항상 그들을 회유하여 모략 준비, 첩보, 선전, 사상방위 등에 이용할 필요가 긴요하다. 따라서 그 가운데 불량한 자는 배제 하더라도 의지를 견고하게 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포용, 통제함으로써 장래전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각 부대 각 기관은 일부의 잘못을 경계하기 위해 전체를 배제하는 따위의 관념을 버리고, 同情으로써 이들을 접하여 기회를 얻고 정신작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래에 활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人選을 신중, 적합하게 해서 과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30년대 초반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인데, 여기에는 백계러시아인 사회가 생계의 위협, 빈곤의 처지 등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점차 분열되고 애초의 반공주의, 반소련의식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회유하여 장차 정보전, 선전전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표명되고 있다.

22) 위의 자료(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 332).

23) 위의 자료(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 333).

4.2. 정보자원으로서의 훈련과 활용

다음으로, 「(秘)第二課長懇談事項」(1933.6.15)에 따르면, “白系露人の 농업이민은 대개 내년도(1934년) 경작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속을 하고, …… a. 密山 부근 100~150가족, b. 富鏞 등지 100~150가족, c. 黑爾根 부근 약 200가족을 이민시킨다. 농촌 이민가족에는 반드시 연령 18~40세의 성인남성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여 백계러시아인의 이민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또, “赤軍의 병력배치 및 축성시설 조사를 위해 현재 취하고 있는 도피 露, 鮮, 滿, 蒙人の 자문, 경찰대 파견 이외에 적극적으로 이에 정통한 적군(赤軍) 군인 또는 공사종업자 등에 대해 상급 및 만주국 내에서의 생활보장 등의 조건으로 유치, 또는 재만주 적군 군인(계폐우) 등을 같은 조건 하에 매수하여 前記 정보의 수집을 기도하는 건, 도피자 중에 군사지식이 풍부한 白系露人을 대동하여 진지의 세부를 탐지하게 하는 건에 대해 가능여부 의견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²⁴⁾ 관동군 정보부서가 각 실무진에게 백계러시아인을 대소련 정보사상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후일에는 백계러시아인 청년에 대한 훈련계획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얼빈육군특무기관이 작성한 「(極秘)特殊移民地白系露人青年訓練實施計畫」(작성연도는 1939년 11월로 추정)에 따르면, 훈련계획의 목적은 백계러시아인이 지닌 특수성에 비취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체득하여 日滿依存心を 양양시킴과 동시에 反共排蘇로 조국부흥의 정신을 강건하게 하여 有事時에 對소련 위력모략 요원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대상은 18~30세의 이민청년 남성으로 설정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서, “(1) 露西亞 민족의 역사 및 소련의 실상을 교육하여 白系露

24) 위의 자료(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1卷, pp. 343-344).

人 특히 그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청년의 사명에 대한 자각을 양양한다. (2) 이로써 반공조국 부흥의 정신을 양성한다. (3) 만주국의 법제, 경제, 지리 등을 교육하여 일반적 상식을 높여 이민지에서의 중견분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 훈련 이후 이들에게 부여될 특전으로서, “훈련생 중 우수한 자는 협화회 일어반에서 주관하는 방일(訪日) 여행에 참가시킨다. 또 적령장정으로서 우수한 자는 아사노부대(淺野部隊)²⁵⁾ 입대 시에 우대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었다.²⁶⁾ 이들에게 교육될 교과목은 다음과 같았다.²⁷⁾

정신교육: 그리스정교, 카자크 전통과 그 미덕, 백계로인 청년의 사명, 일본정신(팔굉일우), 일본건국의 본의(破邪顯正), 공격정신 및 軍紀, 日露 양국에서의 모범적 史實 및 충용 미담.

공민교육: 러시아사, 세계신질서와 일본제국의 사명, 일본사개론, 만주건국사 및 건국정신, 만주국 법제 및 경제 개요, 만주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 소련사정, 국제정세, 기타 공민도덕.

흥미로운 것은 이에 이어 제시된 <비고>란의 내용이다. “군사교육, 정신교육, 공민교육은 서로 구별한다. 정신교육은 白系露人の 특수성에 집중하고 그 민족정신을 양양한다. 공민교육은 만주국의 공민으로서의 소질을 키운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것은 백계러시아인으로서의 특수성

25) 만주국에 있었던 백계러시아인부대의 통칭이다. 관동군의 지도를 받아 대소련 첩보와 파괴공작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부대명칭은 초대 부대장인 아사노 마코토(淺野節)의 이름을 따다.

26) 「(極秘)特殊移民地白系露人青年訓練實施計畫」(哈爾濱陸軍特務機關, 1939.11. 추정)(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p. 508-512).

27) 위의 자료(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 513).

(‘러시아민족’)과 만주국의 공민/국민이라는 서로 섞이기 어려운 이질성을 그대로 드러낸 규정이었고, 머지않은 미래에 이 갈등은 전면화된다.

이외에, 소련에 첩보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만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백계러시아인 및 소련 국적자의 재소련 연고와 인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보당국은 (1) 백계로인사무국(白系露人事務局)이 백계러시아인의 재소련 연고자를 철저히 조사하게끔 요청해야 한다는 점, (2) 편지검열(信書檢閱)을 통일, 강화하고 특히 소련 국적자의 재소련 연고자를 파악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²⁸⁾

4.3. 백계러시아인부대의 편성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으로 구성된 특무부대를 편성했다. 1936년 말, 관동군 제2과(정보담당, 과장은 河邊虎四郎 대좌)는 아사노 마코토(淺野節, 예비역, 육사 33기, 대좌)가 지휘하는 백계러시아인부대(카자크를 중심으로 한 기병 약 2중대)를 기획, 편성하여 하얼빈특무기관장의 지휘하에 배속시켰다. 간부는 일본계였고, 백계러시아인과 만주계 혼성으로 편성되었다. 배치장소는 ‘제2송화강반(畔)’이었다. 다음으로, 횡다오허쯔(橫道河子) 부근에 러시아인삼림경찰대(露人森林警察隊)가 설치되었는데, 하얼빈특무기관에서 지도원이 파견되어 이들을 훈련시켰다. 1941년의 ‘관특연’(關特演)²⁹⁾을 기회로 이 경찰대가 개편되어 橫道河子部隊(보

28) 「(極秘) 研究項目第4項 情報蒐集審査方法ニ關スル具體的研究」(哈爾濱陸軍特務機關, 1940.2.10.) (소재: 栗屋憲太郎, 竹內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1卷, p. 522).

29)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대소련 전쟁준비 동원이다. ‘관동군특종연습’의 약칭이다. 1941년 6월 독소전이 개시되자 일본 육군 안에서는 대소련침공론이 급속히 대두했다. 7월 2일의 어전회의에서는 비밀리에 대소련 전쟁준비를 기획하고 독소전 전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진전될 경우에는 대소전을 개시할 것이 결정되었다. 7월 7일에 최초 동원령이 하달되었고 9월 중순까지 만주, 조선으로 부대가 동원되었다. 그 규모는 일본 육군 건군 이래 최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관동군의 병력은 약 70만,

병대)가 만들어져 만주국군에 편입되었다. 이 부대는 송화강에 설치된 앞의 아사노(淺野) 부대의 형제부대가 되어 관동군 정보부장의 지휘 하에 배속되었다. 이외에, 만주 서쪽 하이랄(海拉爾) 지구의 싰허(三河) 부근에서 ‘관특연’ 당시에 자체적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협력한 사례가 있었다. 싰허는 바이칼 카자크의 중심지로서, 러시아혁명 이후로도 계속 제정 러시아 시대의 부락별 편성을 유지하면서 반공주의를 견지해왔다.³⁰⁾

그러나 1944년 4월, 이들 3곳의 백계러시아인부대는 종전까지의 비밀 부대의 체제를 버리고 공개된 일반부대로 전환하였다. 소련을 자극하는 일을 회피하고 의혹을 완화하는 것이 당시 정세상 필요했고, 실제적인 방첩경호 관계상 무용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4월에 이르러 관동군 총참모장 하타 히코사부로(秦彦三郎) 중장³¹⁾이 취약해진 대소련 전황을 고려하여 긴급처방의 일환으로 백계러시아인부대를 정리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하타는 하얼빈특무기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의 지시에 의해 제2송화강(당시 250명), 海拉爾(150명), 橫道河子(50명)의 각 부

마필 14만, 비행기 약 600대까지 증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소련군이 독일군의 맹공에 견디며 극동소련군의 서부로의 이동이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자 8월 9일大本영 육군부는 소련침공작전을 단념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관특연’은 외면상 ‘연습’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실제로는 대소련 무력발동을 전제로 한 작전준비행동이었고, 따라서 소일중립조약을 위반한 것이었다(출전: 吉田裕, 「関特演」,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30) 西原征夫(1980), pp. 178-184.

31) 秦彦三郎(1890-1959): 1922년, 참모본부 러시아반원, 1926년, 소련대사관 및 스웨덴공사관 파견무관보좌관, 1930년, 폴란드공사관 파견무관, 1933년, 일본 육군참모부 러시아반장, 1934년, 소련대사관 파견무관, 1936년, 신문반장을 지냈다. 1938년에 관동군 하얼빈특무기관장, 1940년에 관동군참모부장(副將)을 지냈고, 1941년에 육군 중장으로 승진했다. 1943년에 참모차장, 1945년 4월 7일에 관동군참모장이 되었고, 패전 이후인 8월 19일에 극동소련군총사령관인 와시레스키 원수와 정전교섭을 수행했다. 이후, 소련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에서 억류되었고 1956년 12월 26일에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갔다. 저서로 「인접국가 러시아」(隣邦ロシア), 「고난을 견디며」(苦難に堪えて)가 있다(출전: 「秦彦三郎」, 『20世紀日本人名事典』, 日外アソシエーツ, 2004).

대, 그리고 삼림경찰훈련소가 모두 폐지, 해체되었다.³²⁾

5.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관동군의 정보사상전

5.1. 관동군에 의한 《백계로인사무국》의 조직

관동군에게 백계러시아인은 첩보, 정보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높았지만,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정보방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들이 지닌 러시아인으로서의 민족의 소질과 만성화된 실업상태가 가져온 일련의 결과들을 관동군은 위구의 시선으로 지켜봤다. 예를 들어, 1936년에는 하얼빈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백계러시아인 청년들이 취업곤란 문제를 이유로 소련으로 귀화를 결의하고 재(在)하얼빈소련영사관에서 소련국적 여권을 신청한 후 소련으로 귀국해버린 일이 발생했다. 하얼빈시 경찰은 그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교육의 불비(不備)를 힐문하였으며 그들 부모의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³³⁾

정보당국 입장에서 백계러시아인의 관리에 공식적으로 개입한 것은 백계로인사무국(白系露人事務局)을 설치한 1934년 12월 말부터의 일이다.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들로 하여금 백계로인사무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종용함으로써 해당 사회 전체를 파악, 통제, 관리하고자 했다. 만주국의 경우 백계러시아인 등록제도가 있어 행정기관(경찰서)에서 등록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백계러시아인은 만주국으로 이주했을 때 10일 이내로 경찰서에 등록해야 했지만, 외국인으

32) 부대의 창설자 아사노(淺野)를 비롯해 패전 당시 백계러시아인부대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아사노는 청산가리로 음독자살을 시도한 가운데 혼수상태로 트럭에 실려 소련군 사령부로 이송되었다.

33) エレーナ(2018), p. 91에서 재인용.

로서 만주국에서의 거류나 활동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비해, 백계로인사무국의 등록 양케이트는 백계 러시아인의 소련국적 취득이력의 유무, 정치적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여섯 가지의 질문, 군사경력에 관한 여섯 가지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의 파악은 관동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백계로인사무국으로서도 백계러시아인의 경제생활을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한 우선과제였기 때문에 이에 협조적이었다.³⁴⁾

관동군은 백계로인사무국의 지도권을 쥐었고, 러시아영토에서 자치공화국을 건립하고자 하는 세묘노프파를 이데올로기 선전에 활용했다. 관동군은 소련과의 장래 전쟁에서 소련에 침공한 이후 그들을 러시아영토로 귀환시킬 것을 약속했다.³⁵⁾ 나아가,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 극동반공정권 수립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1940년 2월에 작성된 하얼빈육군특무기관 명의의 문서(「対ソ謀略ノ刷新ト之ニ伴フ白系指導方案」)³⁶⁾은 그 구체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대소련 모략의 쇄신: 대소련 모략에 관한 종래 구상은 일본의 군부가 직접 지도하여 개개의 모략 단위를 운용하려는 데에 그쳤다. 장래에는 이를 한층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전(開戰)과 동시에 극동반공자치정권을 수립하여 거기에 각종 모략을 통합시켜 정치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주와 중국의 백계러시아인에 대해서는 개전과 동시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 일본군에 대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양양해야 한다. 또, 소련에 거주하는 대중에 대해 자유평화의 독립

34) エレーナ(2018), p. 95, p. 101.

35) エレーナ(2018), p. 97.

36) 「(研究項目第六項) 対ソ謀略ノ刷新ト之ニ伴フ白系指導方案」(哈爾濱陸軍特務機關, 1940.2.16.) (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p. 524-526).

국 창설의 희망 하에 반공자치정권에 합류하도록 그 계기를 부여해야 한다. 평시의 준비로서 …… 백계러시아인에게 행정적 훈련을 실시하여 자치정권의 성립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체, 각종 경제기관의 구성체, 특히 민중과 직접 접촉하는 부문의 책임자에 백계러시아인을 충원한다. 그 때 그들로 하여금 실무의 수행에 유감이 없게끔 하기 위해 능력을 미리 부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모략쇄신에 따른 백계러시아인 지도방책: 현재의 만주국의 행정양태에 다소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2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행정 및 경제기구의 요소요소에 백계러시아인을 참여시켜 실무를 맡기는 방안. 이들을 마치 ‘로봇’같은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업무를 담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별임용의 길을 채택해야 한다. 중앙정부 업무는 아니더라도, 성(省) 이하의 각 지방행정, 자치기구, 군대, 철도, 국책회사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둘째, 백계로인사무국을 활용하여 백계러시아인에 관한 행정적 사항 일체를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기, 배급, 사회사업, 교육, 보건체육, 문화계발, 상공관계 등의 업무를 담임하게 한다. 그러나 백계로인사무국은 모략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지방행정기구나 자치기구 안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존속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고 실무에서만 이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협화회(協和會)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백계로인사무국을 통하게 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동군은 소련과의 개전에 즈음하여 백계러시아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행정권한을 일부 부여하기로 하고 평시부터 이를 준비하게 한다는 안

을 마련함으로써 백계러시아인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백계로인사무국을 정치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백계러시아인 사회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었다.

5.2.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관동군의 선전 및 처우 방침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 사회에 대한 선전의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관동군 정보부가 1943년 6월에 작성한 「대백계선전지침」(對白系宣傳指針)³⁷⁾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이것은 관동군이 백계러시아인과 그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제2항 대(對)백계 선전의 태도”에 따르면,

- 二. 백계의 조국방위사상을 양성시키고 불건전한 민족적 감정에 경도되는 것을 예방한다.
- 三. 소련의 결함 및 궁상(窮狀) 등에 관한 선전을 할 때는 우리의 백계지도에 대해 역효과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五. 백계 중 대러시아인 이외의 소수민족에 대한 선전에서는 이들 민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헛되이 민족 상호 간의 마찰을 양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선, 백계러시아인이 ‘조국’과 ‘민족’을 변별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를테면, 방위되어야 할 조국은 ‘반공러시아’이며 이것은 러시아인이라는 ‘민족소질’을 억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백계러시아인들이 품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37) 「對白系宣傳指針」(關東軍情報部, 1943.6.16.)(*1943년도 제2회 정보부회의(「白系指導ニ關スル指示」)에서의 배포자료 11)(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p. 559-561).

점도 언급했는데, 소련의 결함과 빈곤을 선전의 소재로 삼지만 자칫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백계러시아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카자크, 그루지아 등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제3항 주요 선전사항”에서는 백계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소련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 三. 스탈린 정권 하에서는 소련의 패전이 필연임은 물론, 화평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할 것.
- 四. 소련의 러시아화 정책이 기만이라는 점을 알게 할 것.
- 五. 백계의 공산당 및 스탈린에 대한 증오, 반감의 념을 철저히 할 것.
- 六. 일본의 위력, 반공결의, 일본이 지도하는 국가와 민족의 안주, 건설의 실정, 과정을 선전하여 백계의 반공행동을 촉진할 것.

이처럼, 관동군 정보부는 스탈린 정권 하의 소련의 취약성과 일본군의 위력을 대조하여 백계러시아인들에게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는 점, 사회주의 이념과 러시아민족주의의 공존을 표방하는 소련의 선전정책이 허상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선전실시요령」에서는 “일본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와 민족은 모두 반공이고, 일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착취와 분란이 아니라 안주와 건설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시킨다. 이때 백계는 일본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그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그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그 이유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동군 정보부는 한 가지 유의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는데, 그것은 백계청년층의 사상 상황에 대한 우려였다.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백계, 특히 백계청년층은 공산주의의 원칙적 이념을 맹신한 결과 소련의 현실을 실제보다 좋다고 잘못 믿고 있다. …… 명확한 반공이념에 입각하여 사태의

본질, 이를테면 스탈린의 정책 변화, 사기, 기만, 무절제 등이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적시해두었다.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각함으로써 ‘혁명정부’에 대한 냉소를 유포한다는 발상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을 그 활용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우할 것을 방침으로 세웠다. 「백계지도에 관한 지시」(白系指導ニ關スル指示, 1943.6)³⁸⁾에서는, “백계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희망여부에 불문하여 강제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대소련전, 그중에서도 대소련 비밀전에 이용”해야 할 것으로, 이용도에 따라 선별하여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 “민족적 고려를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호적 조치를 강구하고 또 불량자는 단호히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해당 문서는 ‘백계로서 대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나눠 분류했는데 세부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직접 및 간접으로 對소련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그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여 백계로서 대우하더라도 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갑류(甲類): 정보부 등에서 실제로 현재 對소련 비밀전에 이용하고 있는 자 및 장래 이용할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자와 그 가족
2. 을류(乙類): 현재 및 장래에 직접 對소련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와 그 가족
3. 병류(丙類): 현재 및 장래에 직접 이용할 수 없어도 전황의 자와 관계를 가지고 일만 양국에 충성을 다했으며 간접적으로 對소련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38) 「白系指導ニ關スル指示」(1943.6. 關東軍情報部. 1943년도 제2회 정보부 회의 자료)(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pp. 533-535).

갑, 을, 병에 따라 그 처우(신상필벌)도 달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제5 신상필벌에 대해.

갑류에 대해서는, (1) 물자배급의 증가 (2) 감세 (3) 자제교육의 편의제공(기숙사 이용 우선권, 수업료 보조) (4) 외국인거류증명서 발급료 면제 (5) 영업, 취직, 자선구제시설 이용 등에서의 우선권 부여.

을류에 대해서는, 학생생도, 청년, 의용봉공직, 일본어강습생 등 중에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장려의 목적을 겸하여 적절한 우대방법을 고려.

병류에 대해서는, 민족적 고려를 부여하더라도 특별히 우대하지 않음.

이외에,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와 불량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배급의 감소 또는 정지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히 처분함.

아울러, 관동군은 백계러시아인의 방첩에 대해서도 민감했다. 그들이 적계러시아인과 동일한 민족이고 심지어 서로 섞여 거주하고 있는 실태, 특히 “배급계통 및 배급소, 학교 및 청년남녀의 집합소, 사원 및 자선구제시설, 직업조합, 기업 및 건강관계, 隣組, 거류민회”에서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고려할 때, “만주계, 조선계, 몽골계 이상으로 자중하게 하고 적계와의 접촉을 경계하며, 또 불량한 만주인과의 교제 같은 것도 이를 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백계러시아인 사회 내의 상호감시와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고 감찰과 정첩(偵諜)을 엄격히 하는 것이었다.

6. 맺으며

관동군 정보참모의 회고에 따르면, 백계러시아인 정책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선, 백계러시아인 사회도 반공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정치세력으로 분열되어 분파투쟁이 심각했다.³⁹⁾

- (1) 왕정파: 牧丹江 지구, 대표자는 제프노우, 제정부활의 꿈.
- (2) 파시스트당: 하얼빈 지구, 대표자는 로제프스키·마토코프스키, 독일·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을 통해 반공러시아의 부활을 추구.
- (3) 카자크당: 三河, 하이랄얼 및 舊北鐵 연선의 농촌, 가자크병사 출신자.
- (4) 군인동맹파: 각지의 舊군인파, 대표자는 세미요노프, 舊제정 군인.

특히, 로제프스키의 파시스트당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승기에 따라 한 때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로제프스키의 독선적 성격과 유대인에 대한 편견으로 백계러시아인 사회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⁴⁰⁾

다음으로, 만주국 내에서의 민족(인종) 간 불화가 심각했다. 백계러시아인은 조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했다. 정착할 의지가 없었고 무국적을 유지했다. 백인인종주의의 요소도 내포하여 만주인을 멸시하고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만주국의 행정조치 역시 이들의 고유한 관습, 풍속을 무시했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한 것이 대

39) 西原征夫(1980), p. 208.

40) 파시스트당은 일본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반소련 선전에 활용되었다. 로제프스키, 마토코프스키는 대소첩보전의 일인자로 불렸던 秋草俊(일본육군 소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訊問調書: 秋草俊小將』(1945.11.22). 소재: 粟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2卷, pp. 503-521).

표적이다. 만주국 정부로서도 언어와 풍속의 차이에서 오는 번잡한 문제는 물론, 백계러시아인 처리가 실질적으로 관동군 특무기관의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백계러시아인 문제를 외면하고 경원시하는 입장을 견지했다.⁴¹⁾

마지막으로, 백계러시아인을 관리하는 일은 관동군의 정보기구 입장에서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였고, 그들은 마치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다. 특히, 정보전과 스파이전 수행에서 종종 장점으로 특기되었던 러시아민족의 소질⁴²⁾이 오히려 식별의 한계로 작용하여 우려를 낳았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백계라 칭하는 이들 중에는 표면적으로 반공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비밀리에 소련 국적을 취득하고 소련 측에 매수 내지 회유된 백계와 함께, 음으로 양으로 일만 측의 민족공작에 대항하고 있었던 자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대동아전의 전황이 급박해면서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무기관(정보부)이 백계 공작에 뜻을 둔 까닭은 그중 유능한 적격자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소련(적계) 측이 움직여서 백계 전체를 크게 동요시키거나 일만 측의 지도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점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⁴³⁾

결론적으로,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관동군의 지도, 관리는 그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귀착했다. 1943년 11월이 되면, 백계로인사사무국은 ‘자치조직’에서 만주국 행정기관의 보조조직으로 위

41) 西原征夫(1980), pp. 201-202.

42) 1946년 당시 53세로 모스크바군사재판에 회부되었던 柳田元三(패전 당시 관동주 방위사령관, 일본육군 중장)는 재판조서에서 육군특무기관이 아사노부대의 모략 원에게 착용시키기 위해 소련병(赤軍)의 군복을 저장하고 있었고, 그것은 유사시에 소련병으로 위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柳田元三の訊問書」(1946. 2.27). 소재: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第2卷, pp. 553-558).

43) 西原征夫(1980), p. 206.

상이 변경된다. 관동군 사령부는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지도체제를 관동군 정보부(특무기관) 관할에서 만주국 총무청 관할로 이관시켰다. 백계러시아인에 대한 처리를 관동군이 계속하게 되면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러한 직제변경의 이유였다. 백계로인사무국 조직은 백계로인보도위원회(白系露人輔導委員會)로 개칭되었다.⁴⁴⁾ 만주국 정부예산으로 설립된 만주국의 행정기관이었다. 만주국은 백계러시아인들에 대해 ‘국민’으로 호명하고 이를 내외에 표명하며 또 그 의식을 강화시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려 했다.

그러나 이 기획은 백계러시아인의 정치적 의지와 욕망과는 배치되는 것이었고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관동군과 만주국의 백계러시아인 정책이 늘 활용 위주의 임시방편적 성격이 컸다는 점도 이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다.

“같은 러시아민족인 백계를 활용하여 공산소련에 대항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적절한 슬로건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에 속할 뿐만 아니라, …… 결국 정보부의 선전업무를 돌이켜보면 對백계 및 對소련 선전이념으로서 현실에 채용된 슬로건은 1941년 봄까지는 반공과 조국러시아의 부흥이라는 이념에 민족협화, 왕도낙토라는 만주건국의 언어를 적절히 뒤섞는 것이었다. 이후 소일 간의 국교의 변화나 코민테른의 해산으로 인해 이 이데올로기는 산일되었고 결국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 최종적으로는 만주국의 선량한 국민으로서 日滿과 공생공사해야 한다는 것만 제창되었을 뿐이다. …… 백계에 대한 선전은 당초 反共 또는 조국 러시아의 부흥 등의 슬로건을 통해 그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는데, …… 대동아 전쟁에 돌입한 이후에는 오로지 만주국의 사실상의 한 구성민족으로서 일본, 만주국과 同甘同苦的 경지에 서야 한다는 점만 강조되었다. 극히 침체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다.”⁴⁵⁾

44) エレーナ(2018), p. 96.

게다가, 백계러시아인을 ‘민족협화’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하고자 한 만주국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백계러시아인을 반(反)소련 정보선전활동의 첨단에 위치시키고자 한 관동군의 기획은 서로 괴리, 상충되었다. 실제적으로, 관동군은 만주국이 표방한 다민족사회 기획 안에 자리한 백계러시아인의 모습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만주국이 표방한 그 다민족사회, 공존공영사회가 실질적으로 각 민족의 대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의미했는가, 이를 충실히 담보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점 역시 의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관동군의 입장에서 백계러시아인은 소련에 대한 이해, 견제, 개입에서 소련에 관한 지식의 자원(resources)이자 선전/모략의 유용한 도구였다. 또, 백계러시아인은 ‘반혁명 조국복귀’의 열망을 체현한 주체였다. 그러나 그들은 러시아인의 민족적 소질을 내포하고 있기에 방첩/경계의 관리대상, 위험한 존재로도 인지되었다. 백계러시아인이 지닌 속성, 이를테면 (1) 반공의 이념과 (2) 러시아인으로서의 민족적 소질은 근원적으로 상호 모순과 상충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계러시아인 사회 내부의 분파갈등, 만주국의 민족협화 정책과의 불화, (반공) 이념과 (러시아인) 민족의 충돌, 적계와 백계 러시아인 식별의 한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소련의 군사적 우세 속에서 백계러시아인을 활용한 관동군의 정보사상전은 결국 실패로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군의 대(對)소련 정보사상전, 백계러시아인 정책은 제국들 간의 총력전에서 하위 민족집단이 자리한 장소의 성격,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정치기획의 행방을 추적, 관찰하는 데에 대단히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45) 西原征夫(1980), pp. 165-168.

참고문헌

【자 료】

- 西原征夫(1980), 『全記録ハルビン特務機關: 關東軍情報部の軌跡』, 毎日新聞社.
栗屋憲太郎, 竹内桂 共編(1999), 『對ソ情報戰資料』 第1-4卷, 東京: 現代史料出版.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https://www.jacar.go.jp/>).

【논 저】

- 김인수(2016), 「총력전기 식민지 조선의 인류와 물류의 표상정치」, 『서강인문논총』 47.
_____(2007), 「1930년대 후반 조선주둔일본군의 대(對)소련, 대(對)조선 정보사상전」, 『한국문학연구』 제32집.
심호섭(2013),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군사』 86.
ドミートリエヴァ・エレナ(2018), 「満洲国における白系ロシア人の位置付け: 東洋人と西洋人の共存共栄・民族協同社会の実態」,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49 (3).
大田昌秀(2004), 『沖繩戦下の米日心理作戦』, 岩波書店.
道場親信(2005), 『占領と平和: “戦後”という経験』, 青土社.
山極晃(2005), 『米戦時情報局の『延安報告』と日本人民解放連盟』, 大月書店.
山本武利(2016),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工作』, 新曜社.
森山優(2016), 『日米開戦と情報戦』, 講談社.
楊海英(2015), 『日本陸軍とモンゴル』, 中公新書.
Benedict, Ruth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Cleveland, New York: Meridian Books (1969 printing).
Kushner, Barak (2006), *The Thought War: Japanese Imperial Propaganda*, University of Hawaii Press.
Wright, Gordon (1968), *The Ordeal of Total War, 1939-1945*, Prospect Heights.

III.: Wavel and Press. Inc.

원고 접수일: 2019년 5월 4일

심사 완료일: 2019년 5월 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9일

ABSTRACT

The Kwantung Army (Japanese Armed Forces in Manchukuo)'s Policy of Intelligence Warfare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White Russians

Kim, In-soo*

The most obvious feature of the position of the ethnic minority during the World War II in the Far East was represented through the problem of White Russians. White Russians, who were the anti-Communist groups in Russia, were the targets of the 'Ethnic Harmony Policy' (民族協和政策) advocated by Manchukuo (滿洲國). They represented an ambivalent existenc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ussians on a racial and ethnic perspective. The Kwantung Army (關東軍) tried to study the intelligence warfare techniques of the Soviet Union and used the White Russians as a means of intelligence, propaganda and conspiracy warfare. It also established a buffer-zone with the Soviet Union by utilizing the agricultural immigrants of White Russians. In addition, the Kwantung Army planned to create autonomous governments for them.

From the standpoint of the Kwantung Army, White Russians were both resources of knowledge about the Soviet Union and useful tools for propaganda. The White Russians were also the ones who had a desire to

* Research Professor, Asia Contents Institute, Konkuk University

revert to an anti-revolutionary homeland.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were considered as a danger because they were targets of espionage and vigilance, and they embodied Russian ethnicity. The attributes of White Russians were inherently conflicted and contradictory: the internal political conflicts of White Russians' society, the clash between anti-communist ideals and the Russian national ethnicity, and the in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Red Russians (the revolutionists) and White Russians. The Kwantung Army's intelligence warfare against the Soviet Union through the White Russians during World War II clearly shows the character of the space in which the sub-ethnic groups were located. There is a huge contradiction and ambivalence between desire and neurosis in the Kwantung Army's policy towards the White Russians.

